

# 트럼프, 한·중·일 등 5개국 호르무즈해협 군함파견 요구

佛·英도 거론하며 '팀' 언급...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영향받는 국가들" "호르무즈로 석유 공급받는 국가들이 그 항로 관리해야...미국이 도울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외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

s)"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다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 글의 첫 문장은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는 의미지만,

한국 등을 파견 대상으로 지목한 문장에선 '비라건대'(Hopefully)라는 전제를 단 만큼 아직은 요구 수준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할 것이며,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계속 격침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대이란 공습을 벌이는 동안,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주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요구로 읽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의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루소셜을 통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타국 군함 파견 가능성과 관련, "그들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국가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소셜에 다시 글을 올려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란을 때렸고, 완전히 파괴해 왔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도울 것이다. 아주 많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또 모든 일이 빠르고 원활하며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라며 "이것은 항상상의 노력이야했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화합,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함께 모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이 "아주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군함 파견 및 해협 관리 역할을 요구하면서 미국은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군의 인명 피해 우려가 큰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주로 다른 나라들에 맡겨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은 한·중·일 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을 언급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도입량이 많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행 관리의 주된 역할을 맡고, 미국은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한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베트남 북부 푸옌광성의 한 투표소에서 소수민족 주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AFP=연합뉴스

## 베트남, 국회의원 500명 뽑는 총선 실시...후보자 92% 공산당원

서열 1위 또 럽 서기장 주석 겸직 전망 베트남에서 5년 임기의 국회의원 500명을 뽑는 제16대 총선이 15일(현지시간) 실시됐다. 베트남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투표소 7만2천곳에서 총선 투표를 했다. 수도 하노이의 고층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오전 일찍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응우옌 티 킴(73)은 AFP 통신에 "이번 선거 이후 최고 지도자들이 베트남을 떠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유권자 수는 7천350만명이며 864명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이들 가운데 공산당원은 739명(92.5%)이며 무소속 후보자는 65명(7.5%)에 불과하다. 이는 5년 전 15대 총선 당시 74명(8.5%)보다 더 줄어든 수치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되지만, 모든 후보자는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날 투표는 오후 7시에 끝날 예정이다. 쩐 타

인 만 베트남 국회의장은 선거 결과가 오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소집될 새 국회는 첫 회의에서 서열 2-4위인 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제14차 전당대회에서는 권력 서열 1위인 또 럽(88) 공산당 서기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럽 서기장은 국가 주석 겸직도 추진하고 있어 그가 이례적으로 서열 1-2위를 모두 차지할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 유럽 유대인시설 피습...암스테르담 유대학교 폭발

"폭발물 설치 용의자 CCTV 확보" 전날 로테르담 시나고그서 방화

중동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유럽에서 또 유대인 관련 시설이 공격받았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남부 부촌의 유대인 학교에서 14일(현지시간) 오전 폭발이 일어나 외벽이 손상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암스테르담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당시 도피 생활을 일기로 남긴 안네 프랑크가 독일에서 넘어와 숨어 지내던 도시로, 현재 유대인 거주자는 1만5천~2만명에 이른다. 펠릭 할세마 암스테르담 시장은 이번 폭발을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의도된 공격 행위"라며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할세마 시장은 다행히 이번 일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의자가 폭발 장치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경찰이 확보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폭발이 일어난 시설은 네덜란드에서 유일하게 정통과 유대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유일한 학교로, 뾰족한 금속 외벽 등의 보안 장치 가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최근 취임한 롬 예텐 네덜란드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공격을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하며 "유대인 공동체가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대인 시설의 안전에 전면적인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스테르담 당국은 전날 네덜란드 제2도시 로테르담 중심가의 유대교 회당(시나고그)을 겨냥한 방화 이후 시내 시나고그와 유대인 관련 시설의 경계를 강화한 상태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F1 사우디·바레인 대회 중동 포화로 취소 중동 전쟁으로 걸프국으로 포화가 번지면서 내달로 예정된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F1)의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대회가 각각 취소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1과 국제자동차연맹(FIA)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우디, 바레인 그랑프리 대회 취소를 발표했다.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F1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중동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불행하게도 지금으로서는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벤 술라예 FIA 회장은 "FIA는 항상 우리의 공동체, 동료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이 지역의 평온, 안전 빠른 안정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바레인과 사우디 그랑프리는 각각 오는 4월 12일과 19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F1 시즌 총 경기는 22개에서 22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FIA는 여러 대회 개최지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4월 경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b>1:1 교육</b>	<b>★왕초보 레슨반</b>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b>★구장 실전체험</b>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b>자격증 취득반</b>	파크골프,지도사2급 파크골프,지도사1급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 2급/28만 ▶ 1급/35만 ▶ 심판/10만

**■ 자격취득반/수시접수** ▶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개인연습/이용자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